

그리스도인

* 10/13(화) ② 로마서 6–10장

편지 머리말

1장 바울이 로마교인들에게
인사말/ 자기소개/ 복음/ 죄

편지 본론 ①

1:14–3:20 죄와 진노
죄와 결과들, 우리는 모두 죄인
3:21–5장 믿음과 구원
이제는! 예수 그리스도, 믿음, 칭의

편지 본론 ②

6장–8장 그리스도와 구원
세례, 죽음과 부활에 연합
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
성령과 새 생명

편지 본론 ③

9–11장 이스라엘과 구원
특권/ 불신/ 믿음/ 희망

편지 본론 ④

12장–15:13 은혜와 삶(일상)
예배/ 공동체/ 정권/ 이웃/ 일치

편지 마무리

15:14–16장 계획, 기도요청
추후의 과제와 일정들
뵈뵈 추천과 문안인사
훈계와 기원, 송영

Before 출치며 읽기

<죄의 종>되었던 삶과
<의의 종>된 삶의 차이를
목상하며 통독합니다.

After 묵상하기

나는 그리스도인인가?

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자세히 <복음>을 적어
로마교회에 편지해야만 했을까요?

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
유대인들이 교회를 설립했고, 많은 이방인들이 전도 되었습니다.
유대교로 개종한 후 회당 안에 있던 이방인들 중에도
예수를 영접하며 유대교를 떠나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
다수의 신도를 잃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.
유대인들 안의 분란과 폭동이 부담스러웠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
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(AD 49, 행18:1–2).

교회의 주축이던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.
이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도권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.
교회 내 두 그룹 사이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.
유대인 성도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지위와 표지,
하나님 신앙과 율법에 대한 경륜을 내세웠습니다.
이방인들은 이에 맞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을 강조했습니다.

중재자가 된 바울의 입장에서 찾은 해결 방법은 <복음>이었습니다.
사람의 훈계와 설득이 아니라 차분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.
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내려놓고, 복음에 비추어 <나>를 보게 합니다.
서로 마주 앉힌 것이 아니라, 각자 성령과 마주 앉게 합니다.

우리는 <복음> 앞에 가장 솔직할 수 있습니다.
<복음>으로만 모든 것을 정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.

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.

율법에 정통했으며 열심 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(빌3:5-6).

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닌 복음의 장애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.

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, 언약, 율법, 예배, 하나님의 약속 등을 들으며 자랐습니다(9:4-5).

할례 받은 그들은 응당 아브라함의 자녀,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 여김 받았습니다.

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라 말합니다(9:8).

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(9:19-29).

보고 듣고 알고 익숙한 것이나 표지로가 아니라, 오직 <믿음>으로 얻는 것입니다(10:9-10).

바울도 전에는 유대인의 사랑거리를 내세웠던 사람입니다.

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.

그러나 자기 의지와 달리 저지르게 되는 불법과 부정들이 있었습니다.

선을 행할 때조차 켜켜이 섞여 든 나의 의, 죄의 본성들을 발견했습니다.

율례와 규례에 대한 의지와 행위들이 실패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절망, 참소.

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(7:14-25).

“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,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(7:24).”

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(행9장).

자신의 전존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.

<살아계셔서>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.

그는 하나님을 위해 <내>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바리새 적 오만을 내려놓았습니다.

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(6:3-4).

논리와 명분으로 무장하고 소견대로 행하던 죄의 종, 옛 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되었습니다.

이제 부활하신 예수님, 그분의 거룩한 영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.

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, 그리스도인(Christian)이 된 것입니다.

바울은 사람이 오직 예수로만 변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.

그래서 간절한 심정을 담아 <복음>을 적어 내려갔습니다.

오늘 유대인 성도들의 사랑거리는 유대교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

우리는 그리스도인(Christian), 그리스도의 사람, 예수로 구별된 사람입니다.

우리의 사랑이 <영적인 종류>일지라도 <영의 생각>이 아닌 것은 <죄>입니다.

즉 예수 없는 의와 사랑은 육의 생각이요(8:5, 10:2-3),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(빌3:8).

바울은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한 자임을 선포합니다.

그리스도인답게(8:9-11), 의의 종답게(6:15-23), 양자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(8:15-16).

즉 영의 일, 영의 생각을 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(8장).

내 편, 네 편을 가르며 서로의 사랑거리를 내세우는 것은 영의 일,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.

상속자이면 아버지로 인한 특권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고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(8:17).

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(5:8).

온전하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, 인내하며,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(눅15:11-32, 롬5:34-37).

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서로를 받아들입니다. 먼저 그 길을 간 독생자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.

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, 그리스도인(Christian)입니다.

통독의 맥 잡기

6-7장 새로운 삶

6:1-14 세례 : 그리스도와의 연합 (십자가와 부활)

6:15-23 새로운 삶 ① 노예 비유: 죄의 종인가, 의의 종인가?

7:1-6 새로운 삶 ② 결혼 비유: 율법의 신부인가? 그리스도의 신부인가?

7:7-25 그렇다면 율법이 죄인가? 아니다.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다.

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번민 :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!

8장 어떻게 가능한가? 성령!

8:1-2 성령: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(정죄함 없음)

8:3-13 성령: 영의 일을 하도록 함

8:14-17 성령: 양자의 영,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(특권들과 의무)

8:18-25 “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.”

8:26-30 성령: 우리의 연약함, 기도, 성화를 도우심

8:31-39 결론을 도출하는 질문들: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확신

9-10장 하나님의 부르심 :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

9:1-3 유대인으로 인한 바울의 고뇌

9:4-23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긍휼

9:24-29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부르셨다.

9:30-33 이방인들은 <믿음>으로 의를 얻었다.

10:1-5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으나 <옳바른 지식>을 따른 것이 아니다.

10:6-15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

10:16-21 이방인들을 무지했고, 유대인들은 완고했다.